

# 회원사동정

## LG전선(주)

기계사업 대폭 축소  
전선·기계부문 통합,  
단일 지휘체제로

LG 전선(대표 : 權炆久)이 기존 전선CU와 기계CU 두 개의 사업부문을 통합, 단일 체제로 운영키로 하는 등 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LG전선은 지난 연말 권문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전선CU와 기계CU를 총괄, 그 동안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에 부담을 주어진 기계사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LG전선은 현재 군포공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중 농기계, 공조기, 사출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올해 안에 정리하거나 매각, 분사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소가로 등을 생산하는 환경 관련 사업은 이미 정리했고 제지기계와 공압기 부문은 종업원 분사를 추진중이다. 또 지난해 LG전자로부터 인수한 펌프사업도 국내외 업체들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포의 농기계 공장은 하반기에 전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군포공장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LG전선은 진행중인 기계부문의

구조조정을 가능한한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고 전선과 산업소재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축할 방침이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노·사 협동  
업무보고대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장 張貞坤)는 지난 2월 5일 강동구 명일동 소재 본사 대강당에서 전국 사업소장 및 노조간부 1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협력을 통하여 확고한 전기안전관리태세를 확립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사 고통분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노·사 협동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가적 어려움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결의에 앞서 '98년도 우수사업소 포상과 우

수사업소 사례발표가 있었다.

## 한국중공업(주)

美 복합화력 발전소용  
보일러 3기 수주

한국중공업(사장 尹永錫)이 지멘스 웨스팅하우스(Siemens Westinghouse)사로부터 미국 복합화력발전소용 보일러 3기를 2100만달러에 수주했다.

한중은 지난 2월 10일 발주처인 지멘스 웨스팅하우스사와 700MW급 필라델피아 아이언우드(Ironwood)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갈 폐열회수 보일러(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중은 이 보일러를 지난해 6월에 준공한 창원 HHSG 공장에서 제작, 오는 12월 말까지 현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폐열회수 보일러는 복합화력발전소에 서 스팀 터빈을 돌리고 회수한 증기의 열(廢熱)을 재활용해 증기를 만드는 설비이며 복합화력발전소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환경오염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주로 선진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중은 지난해 지멘스 웨스팅하우스사와 240MW급 가스터빈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어 이번 아이언우드 HRSG 수주를 계기로 미국, 유럽 및 중남미 발전시장 등으로의 공동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중은 창원공장에 피닝머신(Finishing Machine) 등 HRSG 전용 가공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설계 및 제작면에서도 완전기술자립을 이룩했다. 연간 공급능력은 2,200MW 상당이다.

한편, 한중은 "이번 수주는 발전설비 산업의 중추국이라 할 미국에 본격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회관 입주 새도약 기반 다져

**전** 려전자학회(회장 윤명중 KAIST 교수)는 최근 사무실을 과학기술회관 본관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졌다.

지난 2월 4일 거행된 입주식에서 윤명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회가 과

학기술회관에 새 등지를 든 것은 학회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학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고 말했다.

지난 '97년 발족된 전력전자학회는 전력전자 분야 전문가 8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여름 전력전자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또한 3년마다 ICPE(전력전자국제학술회의)를 개최, 학문의 국제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변경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본관) 408호
- TEL : 02)554-0184~5
- FAX : 02)554-0186

## 인민심상

### 사우디에서 총 1억 5200만불 규모의 전기공사 2건 受注

**현** 대건설(회장 : 鄭夢憲)이 사우디 중부전력청이 발주한 미화 1억 1500만불 규모의 송전선로 공사 및 미화 3800만불의 변전소 공사를 2월 들어 동시에 수주함으로써 지난 1월 수주한 2억 3000만불(홍콩 지하철 역세권 개발공사 1억 8000만불 및 UAE 철근공장 공사 4900만불)을 포함 급년 들어 총 3억 8200만불을 잇따라 수주함으로써 해외건설공사 수주전망을 더

욱 밝게 하고 있다.

이는 급년들어 국가신인도가 향상되고 鄭夢憲 회장이 발주처 방문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직접 지휘 독려함으로써 해외건설 수주에 역점을 둔 성과로 분석되며 한국의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현대건설이 해외시장에서의 명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는 상반기중 해외의 수주 예상공사가(10억불 규모의 이란 가스플랜트, 9억불 규모의 리비아 화력발전소, 3억불 규모의 방글라데시 화력발전소 공사 등) 30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99년 해외공사 수주 활기로 한국경제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수주한 美貨 1억 1400만불 규모의 송전선로 공사는 리야드-카심간 380kV 초고압 송전선로 388km를 36개월간 수행하는 공사로 설계, 기자재 공급, 설치, 시공 및 시운전을 포함해 일괄도급방식으로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공사는 지난 '87년 동사가 수주하여 '90년에 완공한 리야드-카심간 380kV 송전선로 공사에 추가하여 건설하는 공사로 입찰에는 저가정책으로 나온 인도의 KEC, 스위스 ABB의 현지법인인 S.S.T.(송전선로 공사에 강함) 및 프랑스의 Cogalex가 참가하여 경합을 벌였으나, 그동안 동사가 사우디에서 축적한 송전선로 공사의 기술적 노하우, 우수한 품질 및 적기 완공의 성실성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하였다.

송전선로 공사와 함께 사우디에서 수

# 회원사동정

주한 132kV 가스절연식 공사는 리야드 지역에 132/33/13.8kV 가스절연식 변전소 3개소를 신설하는 공사로 15개월간 일괄도급방식으로 수행하는데, 당초 발주처(사우디중부전력청)에서는 촉박한 공기를 감안하여 4개소의 변전소를 분할 발주하려 하였으나 동사의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 우위를 인정, 4개소 중 3개소를 동사가 수주하게 되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77년부터 사우디에서 총 14억 3400만불 규모의(발전 : 4억 5900만불, 변전 : 2억 8900만불, 송배전 : 6억 8600만불) 전기공사를 수행, 사우디 전력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 '98년 3월에 수주한 1억 7500만불 규모의 카심 450MW 가스터빈발전소 공사 등 총 2억 2900만불 규모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시공중에 있다.



## 「기자재 직거래 제도」 도입 추진

**전** 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최중운)은 조합원들이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공사용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자재구입보증 및 직거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이번에 기자재구입보증 및 직거래제도를 도입해 공사용 기자재 구매시 가격변동 및 대금결제

진 등으로 기자재 적기 확보시에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에 기자재 공급협력업체로 등록된 기자재 생산 또는 판매업체와 직거래함으로써 조합원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기자재 구입보증서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다.

이번에 기자재공급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국제전기, 대성전선, 영화산업전기제작소, 화성전선 등 총 47개사이며 변압기, 전선 전선관로재, 조명기구, 수배전반, 고압기기 등을 직거래할 수 있다.

조합 보증서 이용방안은 실물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이용지분액 범위내에서 융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기자재 구입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서 발급대상은 조합이 선정한 기자재공급 협력업체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은 기자재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정이조 조일전설 대표, 운영위원으로 고윤규 우성계전 대표, 유완상 원영전력 대표, 장철호 대조전설 대표, 김홍삼 금산전기산업 대표 등 5명을 선정했다.



## 디지털 모터 보호 계전기 개발

**LG** 산전(대표 : 孫基洛)이 다양한 보호 기능을 가진 디지털 모터

보호 계전기를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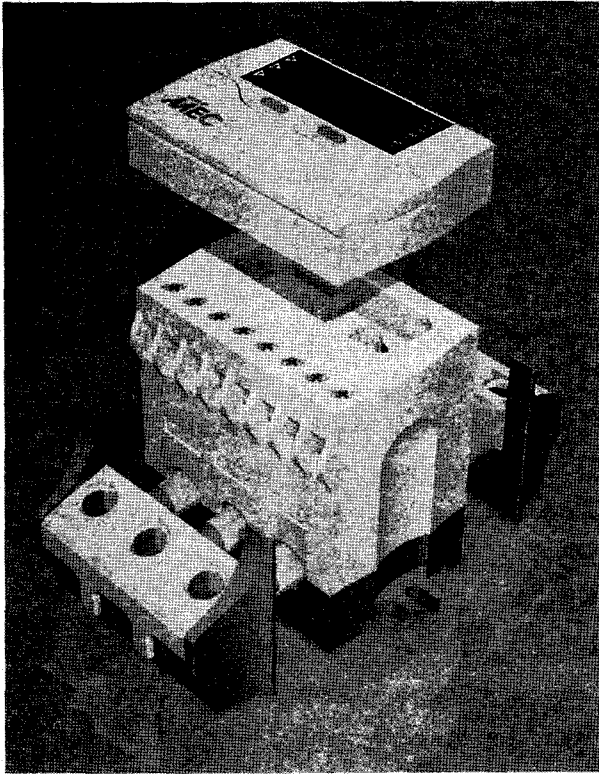
이번에 LG산전이 개발한 디지털 모터 보호 계전기는 과전류, 결상, 역상 등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기능 뿐만 아니라 부족 전류, 지락, 순시 단락에 대한 보호까지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종합 디지털 모터 보호 계전기이다.

이번 신제품은 3상에 흐르는 전류를 표시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고시에는 사고 원인과 사고시의 전류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며, 모터 보호 계전기의 모든 기능을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선택 및 설정할 수 있어 사용이 쉽고 편리하다.

또한 신제품은 표시창이 있는 표시부와 본체를 분리시키거나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단자형과 관통형을 1개의 모델로 일원화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LG 디지털 모터 보호 계전기는 디지털/전자식 계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사용을 꺼려하는 가장 큰 원인인 Noise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자사의 차단기, 개폐기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LG산전은 이번에 디지털 모터 보호 계전기를 출시함으로써 기존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 전자식 모터 보호 계전기(EMPR)와 함께 모터 보호 계전기의 시리즈화를 이루어 시장에서의 지속적



◀ LG산전의 디지털 모터 보호 계전기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LG산전은 지난 3년여에 걸쳐 연구개발비 10억여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엘리베이터 군(群)관리 시스템(모델명 : GNI-2000)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엘리베이터 군관리 시스템이란 오피스 빌딩 및 호텔 등 대형 건물에 설치되는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승객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이용되는 시스템인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 또는 기술 제휴로 제조되고 있는 실정이

었다.

이번에 개발된 군관리 시스템은 LG산전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군관리 할당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엘리베이터 이용 상황에 대해 과거·현재·미래를 분석·예측함으로써 최적의 엘리베이터 할당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층에 있는 사람이든지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물의 교통 흐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최적의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기존 군관리 시스템은 층마다 다른 성능을 나타내어 미리 지정한 특정 층에서만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

었다).

이 시스템은 선진 외국사 제품에 비해 엘리베이터 평균 대기 시간을 10% 이상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어느 엘리베이터가 도착할지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도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총 8대의 엘리베이터를 통합할 수 있으며 최대 64층까지 제어할 수 있다.

또한 GNI-2000 시스템은 32비트 고성능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CPU와 실시간 운영체제(RTOS : Real Time Operating System)로 구성된 제어부가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어 주제어부가 이상을 일으키더라도 보조 제어부를 통해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각 승강장 및 엘리베이터 카(Car) 등과 네트워크(Free-Topology Field Bus Network)로 연결되어 있어 지난해 개발한 차세대 분산제어 엘리베이터(DI 엘리베이터)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LG산전은 이번 군관리 시스템 개발과 관련, 엘리베이터 군관리 시스템의 운행 패턴 예측 장치 등 모두 12건의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를 이미 출원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 논문을 제출하는 등 기술적 성과를 대내외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LG산전은 GNI-2000 시스템이 완성 제품은 아니지만, 올해에만 500억원 이상의 매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